

## 도청이전 신도시 교육특구 추진, 용역보고회 개최

-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최고의 교육 도시로 육성



충청남도가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청이전신도시를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 홍성·예산군, 홍성·예산교육청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4월 4일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성·예산 일대의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이 교육특구 사업에 반영되었다.

도청이전신도시에는 혁신적인 일반교와 국제고등학교 신설 방안이 제시되어 우수 학교가 유치되고, 홍성·예산군은 방과 후 영이학교 운영, 도심형 다문화체험센터 설립 운영, 우수 원이민 교사 지원확대 등 원도심의 교육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충남도는 도청이전신도시를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오제직 교육감, 이종건 홍성군수, 최승우 예산군수가 '도청신도시, 홍성·예산군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교육특구는 금년 상반기에 지식경제부에 신청하여 연말까지 승인을 받아 홍성·예산군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도청신도시는 201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전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홍성·예산군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원도심권의 인구유출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2012이후 도청이전신도시에 특목고와 우수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신도시로의 유관기관·단체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충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확정

- 2012년까지 48개 사업지구에 4,792억원 투자

충청남도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주시 등 8개 시·군에 4,792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4월 8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어 도가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공주·보령·논산시, 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 등 8개 시·군의 성장동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는데

이번에 확정된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원대상 시·군의 특성과 투자의 효율성, 파급효과가 큰 성장동력사업을 선정하여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균형발전 개발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시·군별로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특성화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 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다.

특히 '균형발전 개발계획'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4개 분야 48지구의 성장동력사업에 4,7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분야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등 21지구 3,373억원 ▲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금산군 개삼터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등 9지구 421억원 ▲지역특화분야는 금산군 인삼

명품화사업 등 12지구 860억원 ▲생산유통분야는 서천군 장항 수산물처리저장 시설 등 6지구 138억원이 투자되며,

재원마련은 ▲국비 1,452억원 ▲도비 1,452억원, ▲시·군비 1,357억원 ▲기타 531억원으로,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은 행정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이 두 성장거점을 양대축으로 삼아 낙후된 서남부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의 날』 행사 다채롭게 열려

- 23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도민 3천여명 몰려 '휠체어' 등 체험



충남도는 제2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3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3천여명의 도민들이 장애의 구애없이 어울려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 날 행사는 1부는 기념식, 2부는 문화행사체험 순으로 나누어 열렸는데, 1부 기념식에서는 충남도 장애극복 대상으로 선정된 강창수(홍성군)씨와 보관순(천안시) 등 16명이 이완구 도지사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2부에서는 장애인 한마음대회를 열고 충남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권악단「희망울림」의 연주회를 시작으로 시·군 대표 노래 및 장기사랑, 가훈 써주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이 날 장애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체험해 보기 위해 이 지사를 비롯한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장애인들을 휠체어에 태운 채 밀고 입장하기, 장애인 재활기구 시연해 보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각종 체험행사가 펼쳐졌으며, 장애인 예술인들이 그동안 창작활동을 통해 작업해온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이 작품 감상을 만끽하는 하루가 됐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일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을 홍보하여 비장애인들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이 법률의 효력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 이 지사는 “각기 다른 재료가 어우러져 전혀 새로운 맛을 내듯이 장애인, 비장애인, 남녀노소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하면서

“앞으로 장애인 여러분은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지역과 사회발전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장애물 없는 여건조성과 각종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장애인복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충남, 환황해경제권 중심축으로 우뚝”

- 2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2025년까지 7조4천억원 투입 5,505만㎡ 개발
-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협력거점 도시 개발

충청남도과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4월 25일 드디어 확정되었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이윤호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1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충남의 송악, 인주, 지곡과 경기도의 포승, 향남 등 5개 지구에 대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변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미래동력산업의 국내 최대집적지이며, R&D연구소, 대학, 연관업종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세계수준의 클러스터로 발전가능한 양호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등 외자유치의 선행조건인 매력적인 투자환경이 국내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발비용 등 투자매력이 있는 곳이다.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이 보장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기존 경제구역과 차별화된 자동차 부품, IT, BT 등 첨단산업과 국제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3단계에 걸쳐 오는 2025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지정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일원과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일원에 위치하고 구역 총면적은 총 5,505.1만㎡으로, 이중 충남이 3개 지구 2,959.7만㎡, 경기 2개 지구 2,545.4만㎡이며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지구 면적은 5,263.1만㎡며 개발 유보지역은 242만㎡(4.4%)이다.

지구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충남 당진군 송악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 자동차 부품산업과 전자정보산업 및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아산시 인주지구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 및 관광위락 기능을, ▲서산시 지곡지구는 첨단 자동차 부품산업 기능을, ▲경기 평택시 포승지구는 첨단산업과 국제물류 및 국제비즈니스 외에도 관광과 위락기능을, ▲화성시 향남지구는 생명공학 산업 글로벌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종 도시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의 계획들이 동시에 지정·승인 또는 변경되는 효과가 있고,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36개 법률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 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된다.

▲또한,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수도권 규제 적용배제, 노동규제 완화 등 이 있게 되며,

▲또한,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확대 등의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충남도와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당진에 설립하기로 하고 오는 7월 개청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으며,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능력을 갖춘 개발사업자의 선정을 거쳐 내년중에는 실시계획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범정부적 지원 발판을 마련하여 기반시설 및 주요 시설의 입주, 외국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아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본격화 되면 인프라 조성과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44조 8,950억원, 부가가치유발 15조 4,630억원, 고용창출 28만 3천여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충남지역은 11조 940억원 생산유발액과 3조 3,55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액, 5만 9,498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도의 관계자는 “구역지정을 위해 보내주신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두바이, 싱가포르, 푸동 등 세계적인 경제특구와 경쟁하여 전세계 기업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매력과 역동적인 경제구역개발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 충남도, 단독 외자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액 유치

- 러시아 DI그룹 6억5,000만 달러 투자 유치



충남도가 자치단체의 단독 외자 유치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6억5000만 달러(한화 6천5백억 원)의 러시아 자본을 유치했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신준희 보령시장, 로스토프주 돈인베스트 그룹(Doninvest Group·DI 그룹) 파라모노프(Paramonov) 회장, 타가즈코리아 이승철 사장은 5월 13일(현지 시각) 타간로그시 타가즈 자동차 공장에서 2012년까지 충남에 6억5,000만 달러를 들여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경기도가 LG트윈스와 해외 기업이 합작한 외자 12억 달러를 유치하고, 삼성전자와 소니과 합작한 S-LCD가 충남에 9억 달러를 투자한 사례는 있지만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한꺼번에 유치한 외자 규모로는 이번 DI 그룹의 6억5,000만 달러가 가장 많은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유치한 외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 분야(Green Field) 분야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DI 그룹은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선 충남도와 보령시로부터 관창산업단지 38만7,100여㎡(11만 7,300평)를 임대방식으로 제공받아 3개월 이내에 외국인 투자신고와 입주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와 의무사항을 이행한 뒤 하반기에 착공해 2009년부터 공장을 가동한다.

또 도내 다른 지역에 2010년까지 66만여㎡(20여만평) 규모의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을 설치,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와 보령시는 공장 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은 부대서비스 시설도 지원하는 한편, DI 그룹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각종 지원규정에 충족될 경우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 등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DI 그룹이 충남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DI 그룹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라모노프 회장은 “DI 그룹이 충남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열심히, 그리고 빨리 일하는 한국인의 성실함과 자동차와 관련한 높은 기술력 등 멋진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러시아 DI 그룹의 외자 유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이를 통해 직접 고용만 4,000명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등 팔목할만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충남이 러시아 자본 유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는 2012년까지 공장이 가동되면 직접 고용만 타가스 2,600여명, 협력사 1,500여명 등 4,100여명에 달하고, 향후 200여개의 부품 업체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타가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코란도와 무쏘의 부품 각 10억 달러, 기타 부품 4억 달러 등 연간 24억 달러 상당의 수출 증대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간 40피트 규모의 컨테이너 5만개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컨테이너 1대당 50만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때 물류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연간 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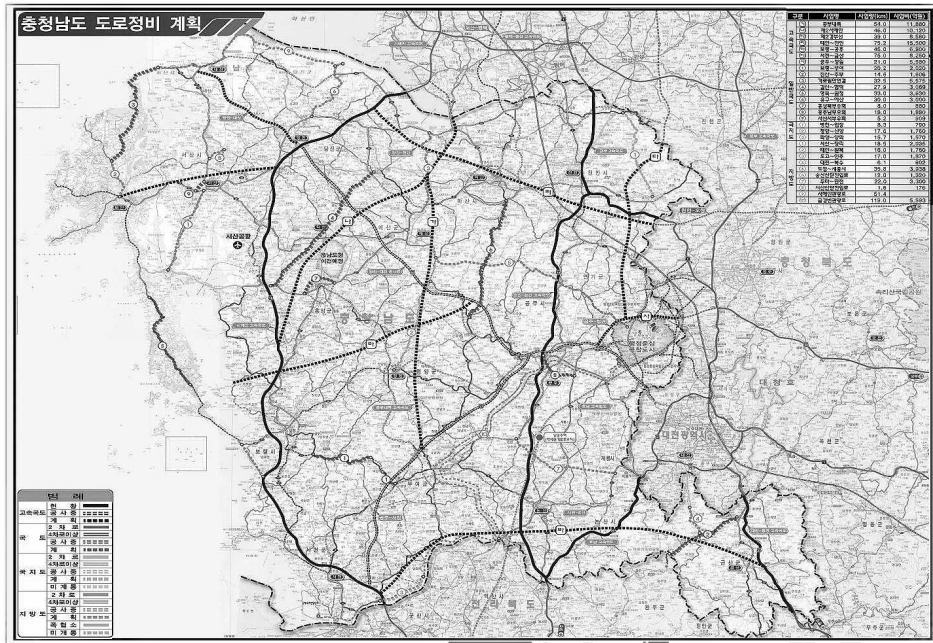
선적 항구 활성화 및 이에 따른 물류 기업 유입 효과, 직·간접 고용 증대에 따른 서비스산업 활성화, 경제활성화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더 나아가 DI 그룹의 입주에 따른 물동량 증가 등을 적극 활용해 정부가 물동량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보령신항 건설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이번 DI 그룹의 외자 유치를 교훈으로 삼아 러시아 자본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제2서해안선, 제2경부선 등 충남 도로망 획기적 확충

- 충청남도 도로정비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발표



충청남도에서는 “道內 1시간대생활권 구축”과 함께, 도내 어디에서나 고속도로는 30분, 행정도시와 도청신도시에는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망을 구축해 나갈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북4축과 동서3축에 x축이 교차하는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

남북방향으로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행정도시~ 용인~하남을 연결하는 제2경부선과, 교통체증이 심각한 기존의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홍성~평택간을 연결하는 제2서해안선을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충남내륙 균형개발을 위하여 부여~아산간 고속도로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함께 남북방향의 4개축을 형성하고

동서축으로, 당진~천안고속도로와 함께 장기적으로 서천~논산~금산(대전)으로 이어지는 고속화도로와 보령~공주간 고속도로를 추진계획이며, 충남지역을 X축으로 연결하는 당진~대전과 서천~공주간 고속도로는 내년 추석 전에 조기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도확장사업도 시행 중에 있는 40개 지구 411.8km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도 4차로율을 현재 51%에서 목표연도인 2017년에는 82%로 신장시켜 나가면서

보령~부여(국도제40호선) 및 추부~진산(국도제17호선), 국도제77호선 안면도 구간과 유구~아산간(국도39호선) 조기착수와 함께 덕산~합덕간(국도제40호선) 국도지정을 추진 한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미 개설구간인 천안 병천~입장(국지도57호선) 및 서천 화양~양화(국지도68호선)와 국지도 승격이 예정되어 있는 청양~신양간(국지도70호선)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는, 교통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서산~창리/도고~인주 등을 4차로로 확장계획이며 당진 송산지방산업단지 및 공주 탄천산업단지와 서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국비를 확보하여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보령~태안~서산~당진을 연결하는 서해안산업관광도로(134km)와 금강하구~부여~공주~연기로 이어지는 금강변 산업관광도로(239km)를 건설하여 산업/관광을 지원하는 도로로 활용

---

하면서 아름다운 도로를 건설 한다는 계획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고속도로 및 국도/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지방도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 추진하면서 투자재원 다변화를 위하여 BTL(임대형 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 등 민간의 유희자본을 유치하여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충남도 전 공무원이 홍보요원 된다

- 도정시책 성공을 위한 실무가이드인 「도정홍보 매뉴얼」발간



충남도가 각종 도정시책 추진시 홍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표준안이 없어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도 홍보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시책 성공을 위한 홍보 실무 가이드인 「도정홍보 매뉴얼」 책자를 1,000부를 제작하여 5월 27일 전 실·과·사업소에 배부했다.

도정홍보 매뉴얼에는 ▲공무원의 홍보 수칙 ▲홍보실무가이드 ▲홍보 계획수립 요령 ▲언론 인터뷰 요령 ▲브리핑·연설문 작성요령 ▲언론모니터 요령 등 실무지식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15쪽 분량의 포켓용으로 제작되어 휴대가 간편하고, 브리핑 및 연설문 작성요령과 홍보 계획 수립 요령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경험이 부족한 신규공무원들에게 좋은 교육 교재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은 “정보화가 진전 될수록 정책홍보의 비중은 커져가고 있으며, 정책과 홍보는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와 받을 수 있다” 며

“정책 입안시부터 홍보를 통해 여론을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무원들이 홍보 기법을 충분히 익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니 전 직원이 숙지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 忠, 日 나라현과 ‘문화관광 교류협정’ 체결

- 백제와 아스카시대 옛 명성에 걸맞는 문화교류 활발 기대



충남도는 6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양 도·현 박윤근·우에노 준이치 문화관광국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 교류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양 도·현의 문화사업 교류 적극지원 ▲양 도·현의 문화·관광·체육 등 행사 지원·협조 및 홍보활동에 주력 ▲양 도·현에 위치한 문화연구기관·박물관·도서관 등 전문기관 간의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등 추진 ▲협정체결 이행 위해 ‘실무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기로 합의하였다.

도에서는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되면 ▲제54회 백제문화제 홍보 및 참

관단 파견 요청 ▲2010 대백제전 과 평성천도 1300년 기념사업의 홍보 및 교류협력 ▲2010년에 옛 백제의 해상로인 나라현~제주도~당진~상해 구간에 해상 백제로드 크루즈 운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6월에 제의했던 ‘2010 대백제전’ 과 ‘평성천도 1300년 기념사업’ 협력에 대해 아라이 쇼고나라현 지사께서 흔쾌히 승낙해 줘서 감사드린다.” 며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번 교류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 도·현은 백제와 아스카시대 옛 명성에 걸맞는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등 일행 55명은 협정서 체결식 끝나면 아스카 문화가 전래되었던 백제문화의 분향인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과 역사문화관, 정림사지 등 백제유적지를 답사하고 5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충남도와 나라현은 지난해 6월 13일 나라현에서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1년동안 총10회에 이르는 교류와 협의를 통해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 도, 전국 No.1 브랜드 '토바우' 육성

- 올부터 2012년까지 368억 투입, 전국 도매시장 출하두수 17% 점유 목표

충남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해 충남 한우 브랜드인 '토바우'를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토바우 5개년 중장기 도약·정착계획'을 6월 13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368억원을 투자하여 '토바우'를 전국 넘버 원(No.1) 한우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현재 830여호에 3만9천여두 규모를 2012년까지 1,200여호에 10만여두 규모로 늘려 나갈 계획이며,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사료공급을 위해 올해 41억원을 투자, 토바우 전용 사료공장을 신설·운영하고, 브랜드 참여 한우 전 두수 혈통등록 및 암소 해군우 1만두를 확보하고, 양질의 조사료와 우량송아지 생산·공급을 위해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13개소와 송아지 생산기지 13개소를 조성하고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하여 전국 최고의 고급육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불거진 안전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신뢰 받을 수 있는 명품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해 금년중에 '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을 도입·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밖에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현재 17개 전문판매장을 2012년까

지 400여개 전문판매장·전문식당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공 및 물류유통기지 5개소를 운영하여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충남도는 중장기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10만여두를 사육하여 연간 1만3천여두를 출하하게 되어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출하 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 점유율 17%를 차지하는 전국 제일의 명품브랜드로 도약하는 한편, '토바우'가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이끌어 나갈 구심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완구도지사, 日 간사이~청주공항 직항로개설 이끌어 내

- 11일, 하시모토 오사카부지사(大阪府知事) 만나 직항로개설 전격 합의
- 직항로 개설로 2010년 대백제전에 일본관광객 5만명 찾을 것으로 기대



청주국제공항과 일본 간사이(關西空港) 국제공항 간 직항로 개설 논의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백제문화제 홍보 등을 위해 일본·동남아를 방문중인 이완구 충남지사는 일본순방 첫째날인 6월 11일 하시모토도오루(橋下 本徹·38)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지사와 만나 중부권 거점공항이 청주공항과 일본 관서지방 거점공항인 간사이공항 간 직항로를 개설하자는 데 합의를 이끌어 냈다.

1997년 국제공항으로 개항한 청주공항은 지난해 1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선양(瀋陽) 등 중국노선과 홍콩 등

에 국제선을 띄우고 있어 간사이공항과의 직항로가 개설되면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공항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주공항이 '24시간 개방 자유공항'으로 지정될 경우 24시간 공항인 간사이공항과의 연계도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충청권 주민들이 오사카를 방문하려면 인천공항까지 3시간, 대기시간 2~3시간을 포함해 5시간 이상을 허비한다.”며 “청주공항을 이용하면 간사이공항까지 2시간30분~3시간이면 충분하다”며 직항로 개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순방일정을 마친 뒤 귀국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 청주공항~간사이공항 직항로 개설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하시모토 지사는 “간사이공항은 일본의 여러 공항 가운데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건설된 공항”이라며 “일본 유일의 24시간 공항인 간사이공항이 청주공항과 직항로를 개설한다면 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충남도는 청주공항과 간사이공항간 직항로가 개설되면 2010년 충남 공주·부여에서 개최되는 대백제전에 5만여 명에 달하는 일본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충남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전국평가 1위

- 내년에 인센티브 지원받게 돼, 명실상부한 전국 모범道 위상 과시

충남도가 행정자치부 주관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충남도는 내년도 시도별 균특회계 예산 배분시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돼,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모범 자치단체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과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실시된 국가균형발전 평가는 2007년도 균특회계 추진 사업실적, 자체평가 절차 이행 등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관련 전국단위 종합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균특회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계정사업에 55개 사업 7,060억원, 지역혁신계정 사업에 24개 사업 1,167억원 등 모두 79개 사업 8,227억원을 투자하였고,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및 규칙 제정,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전담부서 균형발전팀 설치등을 추진하여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또한, 도는 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여 균형발전사업 하나하나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과성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도는 내년에도 국가균형발전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충남도가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